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오은진¹, 박순아^{2*}

¹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²문경대학교 간호학과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dult attachmen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Eun-Jin Oh¹, Sun-Ah Park^{2*}

¹Department of Nursing,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²Department of Nursing, Munkyeong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J시, M시 소재의 간호대학생 685명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Hierarchical regression,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성인애착은 7점 만점에 회피애착 4.80점(± 0.91), 불안애착 4.51점(± 0.76),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3.51점(± 0.49),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3.15점(± 0.46)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은 대학생활적응($r=0.437$, $p<0.01$), 대인관계능력($r=0.585$, $p<0.01$)과 양의 관계이었고,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적응($r=0.355$, $p<0.01$)과 양의 관계에 있었다.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증가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았으며($B=0.225$, $p=0.027$), 대인관계능력이 증가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고($B=0.145$, $p=0.040$), 성인애착이 높아짐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이 높게 나타났다($B=0.396$, $p=0.021$). 또한, 대인관계능력은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매개역할을 하였다($Z=3.560$, $p<0.001$). 이에 대한 설명력은 34.2%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을 포함하여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investigate whether or not interpersonal competenc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85 college students located in J-si and M-si, and data were collected for 25 days from November 1 through 25, 2015.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Hierarchical regression, and Sobel test using SPSS 23.0. As adult attachment increased, adjustment to college life was enhanced ($B=0.225$, $p=0.027$); as interpersonal competence increased, adjustment to college life improved ($B=0.145$, $p=0.040$); and as adult attachment increased, interpersonal competence increased ($B=0.396$, $p=0.021$). In addi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Z=3.560$, $p<0.001$). To enhanc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need to be improved.

Keywords : Adjustment, Interpersonal Relations, Nurse student, Object attachment

본 논문은 한국국제대학교 2016년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n-Ah Park(Munkyeong College)

Tel: +82-54-559-1281 email: hgi96@hanmail.net

Received May 31, 2016

Revised (1st July 25, 2016, 2nd August 10, 2016)

Accepted August 11, 2016

Published August 31,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발달단계에서 성인기 초기에 속하며,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을 시작하며 어릴적 부모애착에서 친구, 연인 등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성인애착이 발달하는 시기이다[1]. 성인애착은 자신에게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특정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안정적 경향성을 의미한다[2]. Bowlby[3]는 애착(Attachment)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어릴적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통해 성인애착으로 이어지며, 일 방향의 애착관계에서 애착대상과 양방향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1].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 경제적 자립, 인생관을 확립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특히 자신과 친밀한 대상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성인애착이 발달하기 시작하며,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는 새로운 환경인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은 중요하다. 대학생활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며 직업의 선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있어 대학생활적응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4]. 그러나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의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대학입학 후 이전과 갑자기 달라진 환경 속에 다양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일상생활스트레스나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5]. 특히, 학업과 진로 관련영역에 있어 선택과 책임이 증가하게 되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된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으로는 학점이수, 시간관리,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고민 등으로 나타났다[6].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해 임상실습과 국가고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 과중한 학과 공부와 과제 등으로 대학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7]. 게다가 전공과정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지원한 학생들의 적성불일치는 대학생활적응 곤란과 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8], 특히 대학생의 심리 특성 중 성인애착은 대인관계, 대학생활적응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10].

청소년기 이후에 형성된 애착관계는 영유아기 애착과 비교해서 애착대상에 대한 신체적 접근의 빈도와 강도가 감소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대상이 안전기지가 되므로[11]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성인애착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애착연구에서도 낯설고 새로운 환경인 대학생활에서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관계가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9].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에서 회피애착,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2], 불안정애착 유형은 안정형애착 유형보다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즉,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 유용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간호는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는 학문으로서, Peplau[13]는 간호를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대인관계 과정으로 보았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치료적 관계형성을 맺으며, 건강관리팀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대상자와의 대인관계능력이 요구되는데, Kim[7]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대상자 욕구만족도가 높았고,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간호사는 역할수행 자신감이 높고, 이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능력은 향후 간호직무 수행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14][15], 성격유형, 자아탄력성[16], 부모와의 애착관계[17][18], 대인관계[8] 등이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초기 중요한 발달의 지표가 되는 성인애착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성인기 애착발달을 시작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두 변수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

생활적응을 확인하여 취약계층에 속한 간호대학생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성인애착과 대학생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하고,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역할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고,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M시 소재 3곳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723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685부를 최종분석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G Power 3.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power 0.95, 효과크기 0.15를 기준으로 최소표본수가 172명으로 산출되어 대상자수는 충분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 성인애착 36문항, 대인관계능력 18문항, 대학생활적응 25문항으로 총 86문항의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이다.

2.3.1 성인애착

성인애착척도는 Fraley, Waller & Brennan[19]이 개발한 성인애착유형검사인 ECR-R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을 Kim[2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친밀관계경험검사를 사용하였다. ECR-R은 총 36문항이며, 불안 하위척도 18문항, 회피 하위척도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은 타인으로부터 거절과 버림받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며, 회피는 타인과 가까워지거나 의존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차원이다. 이 도구는 1점에서 7점까지의 7점 Likert형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점수를 역변환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회피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애착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Kim[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은 불안 .89, 회피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불안 .91, 회피 .88이었다.

2.3.2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Gurney[21]가 개발한 대인관계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RCS)를 Moon[22]이 번안한 것을 기초로 Chang[2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RCS는 총 18문항으로 의사소통 3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4문항, 이해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을 의미한다.

2.3.3 대학생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 & Siryk[24]가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Lee[25]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 별로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Likert형 척도이다. Lee[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4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였으며, 연구자가 J시, M시 지역의 중소도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허락을 구한 뒤, 직접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개별봉투에 설문응답지와 동의서를 함께 수거하여 밀봉 처리하였다. 총 723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응답에 불성실한 자료 38부를 제외한 총 685부(94.74%)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모든 학생들에게 설명문을 배부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조사도중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응답결과는 오직 순수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자료를 모두 소각함을 알리고 모든 대상자에게는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확인하였다.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26]의 매개효과 검증을 사용하여 총 5단계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19%, 여자는 81%로 여자가 많았고, 학년은 1학년 29.6%, 2학년 23.8%, 3학년 24.2%, 4학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competence, adjustment to college life subject's (N=685)

Characteristics		n	%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competence		Adjustment to college life	
				avoidance	anxiety				
				M $\pm$ SD	t/F(p)	M $\pm$ SD	t/F(p)	M $\pm$ SD	t/F(p)
Gender	Male	130	19.0	4.62 $\pm$ 0.87	1.674	4.92 $\pm$ 0.96	1.674	3.55 $\pm$ 0.55	0.898
	Female	555	81.0	4.48 $\pm$ 0.73	(.096)	4.77 $\pm$ 0.89	(.096)	3.50 $\pm$ 0.47	(.371)
Grade	1st _a	203	29.6	4.45 $\pm$ 0.71	5.384	4.77 $\pm$ 0.92		3.51 $\pm$ 0.44	5.927
	2nd _b	163	23.8	4.37 $\pm$ 0.82	(<.001)	4.74 $\pm$ 0.87	0.568	3.38 $\pm$ 0.49	(<.001)
	3nd _c	166	24.2	4.69 $\pm$ 0.72	c>a,b	4.83 $\pm$ 0.94	(.636)	3.57 $\pm$ 0.49	c,d>b
	4nd _d	153	22.3	4.53 $\pm$ 0.77		4.85 $\pm$ 0.90		3.58 $\pm$ 0.51	
Age	20 - 23	605	88.3	4.50 $\pm$ 0.75	0.717	4.77 $\pm$ 0.91	3.053	3.49 $\pm$ 0.46	2.431
	24 - 27	72	10.5	4.61 $\pm$ 0.88	(.488)	5.02 $\pm$ 0.90	(.048)	3.62 $\pm$ 0.64	(.089)
	>28	8	1.2	4.47 $\pm$ 0.36		5.12 $\pm$ 0.77		3.65 $\pm$ 0.62	
Select motivation	voluntary _a	295	43.1	4.61 $\pm$ 0.80	4.21	4.93 $\pm$ 0.92		3.58 $\pm$ 0.50	3.26 $\pm$ 0.46
	employment _b	250	36.5	4.41 $\pm$ 0.7	(.006)	4.67 $\pm$ 0.88	3.942	3.44 $\pm$ 0.48	3.08 $\pm$ 0.44
	advice of people _c	135	19.7	4.51 $\pm$ 0.70	a>d	4.75 $\pm$ 0.93	(.008)	3.49 $\pm$ 0.45	3.03 $\pm$ 0.46
	Etc. _d	5	.7	3.89 $\pm$ 0.77		4.73 $\pm$ 0.47		3.37 $\pm$ 0.38	3.15 $\pm$ 0.12
College life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_a	19	2.8	4.03 $\pm$ 0.47		4.40 $\pm$ 1.13		3.43 $\pm$ 0.46	2.42 $\pm$ 0.57
	dissatisfied _b	85	12.4	4.29 $\pm$ 0.57	10.1	4.49 $\pm$ 0.76	6.007	3.39 $\pm$ 0.47	5.97
	usually _c	316	46.1	4.42 $\pm$ 0.71	(<.001)	4.77 $\pm$ 0.90	(<.001)	3.46 $\pm$ 0.47	(<.001)
	satisfaction _d	219	32.0	4.73 $\pm$ 0.83	a,b>c	4.94 $\pm$ 0.88	a>c	3.63 $\pm$ 0.49	3.05 $\pm$ 0.39
	very satisfaction _e	46	6.7	4.64 $\pm$ 0.91		5.08 $\pm$ 1.06		3.55 $\pm$ 0.51	3.37 $\pm$ 0.41
Best friend number	<5 _a	33	4.8	4.33 $\pm$ 0.74	18.846	4.64 $\pm$ 0.90	9.988	3.42 $\pm$ 0.49	12.175
	5~9 _b	518	75.6	4.65 $\pm$ 0.69	(<.001)	4.93 $\pm$ 0.88	(<.001)	3.58 $\pm$ 0.45	3.08 $\pm$ 0.46
	>10 _c	134	19.6	4.75 $\pm$ 0.88	b,c>a	4.99 $\pm$ 0.94	b,c>a	3.63 $\pm$ 0.51	3.19 $\pm$ 0.45

: scheffe

22.3%였다. 나이는 20-23세가 88.3%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학과 선택 동기로는 자발적 43.1%이 가장 높았다. 대학생활만족도는 보통이 46.1%로 가장 많았고, 친한 친구 수는 5-9명이 75.6%로 가장 많았다.

성인애착 중 회피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 학년($F=5.384$, $p<.001$), 간호학과 선택 동기($F=4.21$, $p=.006$), 대학생활만족도($F=10.1$, $p<.001$), 친한 친구 수($F=18.84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불안애착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특성은 나이($F=3.053$, $p=.048$), 간호학과 선택 동기($F=3.942$, $p=.008$), 대학생활만족도($F=6.007$, $p<.001$), 친한 친구 수($F=9.988$, $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 학년($F=5.927$, $p<.001$), 간호학과 선택 동기($F=3.998$, $p=.008$), 대학생활만족도($F=5.97$, $p<.001$), 친한 친구 수($F=12.175$, $p<.001$) 이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t=4.16$, $p<.001$), 나이($F=5.17$, $p=.006$), 간호학과 선택 동기($F=10.712$, $p<.001$), 대학생활만족도($F=46.328$, $p<.001$), 친한 친구 수($F=6.073$, $p=.002$)가 있었다.

3.2 대상자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 적응의 점수

본 연구대상자의 성인애착은 평균평점 7점 만점에 회피애착의 점수는 4.80점(± 0.91), 불안애착은 4.51점(± 0.76)이었고, 대인관계능력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51점(± 0.49)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3.15점(± 0.46)이었다(Table 2).

Table 2. Mean of variables for the subjects

(N=685)			
Variables	Categories	Mean	±SD
Adult attachment	Avoidance	4.80	±0.91
	Anxiety	4.51	±0.76
	Communication	3.51	±0.65
	Trust	3.53	±0.59
Interpersonal competence	Friendliness	3.60	±0.61
	Sensitivity	3.47	±0.72
	Openness	3.39	±0.57
	Understand ability	3.58	±0.64
	Total	3.51	±0.49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ademic adaptation	2.91	±0.63
	Social adaptation	3.36	±0.54
	Emotion adaptation	3.15	±0.77
	Physical adaptation	3.10	±0.56
	Attachment to the university	3.18	±0.66
	Total	3.15	±0.46

3.3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인애착은 대학생활적응($r=.437$, $p<.01$)과 대인관계능력($r=.585$, $p<.01$)과 양의 관계이었고,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적응($r=.355$, $p<.01$)과 양의 관계에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685)

Variable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competence	Adjustment to college life
Adult attachment	1		
Interpersonal competence	.585**	1	
Adjustment to college life	.437**	.355**	1

*: $p<.05$, **: $p<.01$

3.4 대상자의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Figure 1, Table 4와 같다. 성인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26]가 제안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3단계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성인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B=.283$, $p=.022$)이 유의하였다. 즉, 성인애착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B=.225$, $p=.027$)과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B=.145$, $p=.040$)이 유의하였다. 즉, 성인애착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지고,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력($B=.396$, $p=.02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인애착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효과(.283)와 직접효과(.225)

를 비교했을 때(.283-.225=.058), 총 효과가 크므로 부분 매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른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Z=3.560$, $p<.001$). 따라서 대인관계능력은 성인애착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34.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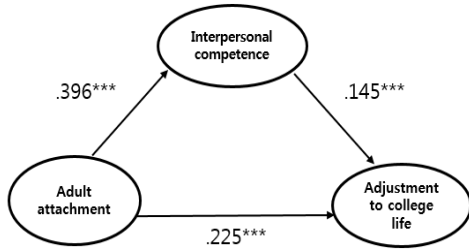


Fig. 1. Mediating Model

Table 4. Mediating Effect (N=685)

Step	Model	B(SE)	β	t	F	R^2
1 step	Adult Attachment → Adjustment to college life	.283 (.022)	.437	12.697***	161.213***	.191
	Adult Attachment → College life	.225 (.027)	.348	8.281***		
2 step	Interpersonal competence → Adjustment to College life	.145 (.040)	.152	3.612***	88.551***	.206
	Adult Attachment → Interpersonal competence	.396 (.021)	.585	18.828***	354.495***	.342

*** : $p <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하고,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인애착의 회피애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학년,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친한 친구 수 등으로 나타났고, 불안애

착은 나이,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친한 친구 수였다. 특히,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친한 친구 수는 회피애착과 불안애착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회피애착이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타인을 신뢰할 수 없고 친밀한 관계에 가치를 두지 않는 성향과 관련이 있으며,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불안애착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 하겠다[1].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발달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인 자발적으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대학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 친한 친구 수가 적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성인애착 증진 프로그램 적용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Lee et al.[8]의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 특성으로 학년,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친한 친구 수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를 조사한 Kim, Park & Ha[27]의 연구에서는 친구 수, 동기 형태, 학년, 용돈,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친구수가 많을수록, 3학년에서 대인관계가 높게 나타난 점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 본 연구에서는 2학년이 대인관계능력 점수가 다른 학년에 비해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전공교과목을 시작하면서 조별과제, 학업량 증가 등으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진 까닭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15], 성적이 부진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스터디그룹 지원 등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프로그램 제공과 간호대학생이 2학년 시기에 대인관계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과목의 편성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편,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영역 중 개방성이 가장 점수가 낮았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이 국가고시나 취업 등으로 학업량이 많고, 전공교과목의 경우 수업방식이 대부분 강의식 수업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상대평가로 인해 성적에 예민하기 때문에 개방적인 대인관계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Oh[15]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전공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는데, 전공교과목을 시작하는

2학년 시기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대인관계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개방적인 의사소통술 교육과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개방적인 수업방식의 개선이 대인관계능력 향상과 대학 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한편, 친한 친구수가 적은 경우에는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 새로운 타인과의 관계형성에서 더 어려움을 느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가 많을수록 성인애착이 높고,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동아리 활동이나 멘토-멘티의 선후배 관계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6][28].

본 연구결과,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친한 친구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Oh[15]의 간호대학생 대상 대학생활적응 연구결과인 학년별, 성별, 동아리활동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이 높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거나 다른점이 있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중 나이가 24-27세인 경우가 가장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높았고, 28세 이상인 경우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늦은 나이에 간호학과에 재입학하거나 편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만학자의 경우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학과적응 프로그램제공과 지도교수와의 친밀한 관계형성, 지속적인 면담이나 대학생활 오리엔테이션 제공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이 긍정적일수록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인애착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게 나타난 Lee & Cho[29], 성인애착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다고 보고한 Kim & Lee[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대학생의 애착이 대학생활에서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Jang[9]과 성인애착과 대인관계의 관련성을 보고한 Kim[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발달이 중요한 요소가 됨을 시사해준다. 한편, Lee & Cho[29]의 연구에서 공감능력이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에게 공감능력을 향상시키

는 프로그램이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에서 대상자와 치료적 의사소통술 능력이 요구되고, 친밀한 타인과의 관계형성이 필요하므로 성인애착발달이 중요하다. 또한, 성인애착의 두 가지 차원인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성인애착발달이 취약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형성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애착과 대학생활적응에서 양의 관계를 보고한 Sung[17]과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대학생 생활적응 관계를 조사한 Kim & Lee[6]와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한 Cho & Seo[30]의 연구에서 성인애착 중 애착불안이 대학생활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유사했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Kawg[14]의 연구에서 자존감으로 나타났고, Lee & Joen[16]은 낙관적 태도였다. 자존감과 낙관적 태도는 성인애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인애착의 증진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인식을 향상시켜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성격에 영향을 미쳐 대학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우관계가 대학생활적응과 양의 관계에 있다고 한 Jang, Chun & Ham[31]의 연구결과와 대인관계가 대학생활만족과 양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한 Lee et al.[8]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변수 사이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에서 양의 관계를 보고한 Kim과 Lee[6],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한 Lee & Cho[29],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Jang et al.[31] 등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일반적 특성 중 차이를 보인 변수를 중심으로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특히, 친한 친구가 적고,

대인관계능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간호 대학생들에게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하고,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매개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의 회피애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학년,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친한 친구 수 등으로 나타났고, 불안애착은 나이,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성적, 친한 친구 수였다.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특성은 학년,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친한 친구수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적응은 성별, 나이, 간호학과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도, 친한 친구 수였다.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또한,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결과, 성인애착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았고,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애착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으며, 설명력은 34.2%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 성인애착 증진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대상자들은 일부지역 소재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추후에는 보다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을 포함하여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O. B. Jung, S. H. Jung, H. J. Hwang, Attachment and development, Seoul: Hakjisa.
- [2] M. Main, N. Kaplan, J. Cassidy,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 pp. 66-104, 1985.
- [3] J. Bowlby,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vol. 39, pp. 350-373, 1958.
- [4] I. Y. Cho,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5, pp. 2937-294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2937>
- [5] S. J. Lee, J. H. Yu, "A causal model among self-determination, career stress,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Asian women, vol. 48, no. 2, pp. 35-64, 2009.
- [6] J. U. Kim, M. H. Lee,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and self-differentiation o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2, pp. 506-516, 2014.
- [7] S. N. Kim, "Effects of the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on ego-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c Society of Enneagram Spirituality, vol. 1, no. 1, pp. 46-57, 2012.
- [8] Y. S. Lee, S. H. Park, J. K. Kim,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4, pp. 229-240,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6.22>
- [9] H. S. Jang, "Attachment and the development of ego identity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 13, no. 2, pp. 115-130, 2000.
- [10] J. H. Park, Y. J. Cho, "Romantic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vol. 44, no. 7, pp. 113-124, 2006.
- [11] K. A. Kern, L. Klepac, A. K. Cole,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2, no. 3, pp. 457-466,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32.3.457>
- [12] S. H. Kim,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adult attachment of employe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of Korea, 2011.
- [13] H. E. Peplau,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psychodynamic nursing, Putnam's Sons.
- [14]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5.2178>
- [15] J. H. O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0, pp. 873-884, 2014.

-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0.873>
- [16] M. R. Lee, H. S. Jeon, "Personal types, ego-resilience,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 8861-8869,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861>
- [17] M. H. Sung,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attachment, self-efficacy and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19, no. 2, pp. 316-327, 2005.
- [18] B. H. Park, Y. S. Chong, "Student personal characteristics, parent attachment and adjustment in colleg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5, no. 3, pp. 1-13, 2007.
- [19] R. C. Fraley, N. G. Waller, K. A. Brennan,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8, pp. 350-365, 2000.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78.2.350>
- [20] S. H. Kim, "Adaptation of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scale into Korea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response theory approach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2004.
- [21] B. G. Gurney,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77.
- [22] S. M.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 19, no. 2, pp. 195-204, 1980.
- [23] H. S. Chang,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relationship style, and etiquette implementation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of Korea, 2006.
- [24] R. W. Baker, B. St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no. 2, pp. 179-189, 1984.
- [25] Y. J. Lee, "The non-residential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pla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1999.
- [26]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27] H. S. Kim, W. J. Park, T. H. Ha,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al Nursing Education*, vol. 12, no. 2, pp. 229-237, 2006.
- [28] S. O. Choi, J. K. Park, S. H. Kim,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al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182-189,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2.182>
- [29] J. H. Lee, Y. A. Cho, "The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no. 2, pp. 579-594, 2014.
DOI: <http://dx.doi.org/10.15703/kjc.15.2.201404.579>
- [30] H. J. Cho, Y. S. Seo,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dult attachment, college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ollege freshma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2, no. 2, pp. 385-411, 2010.
- [31] S. H. Jang, Y. H. Chun, S. S. Ham, "The effects of peer relationship and dysfunctional family on life adjustment in university",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6, pp. 539-548,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6.539>

오 은 진(Eun-Jin Oh)

[정회원]



- 2011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5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애착, 간호교육

박 순 아(Sun-Ah Park)

[정회원]



- 2012년 2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3년 9월 ~ 2015년 1월 : 순천제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5년 9월 ~ 현재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중독, 정신장애인